

# 어원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 — '앎/앎' 계열 어휘의 어원 연구를 중심으로 —

안찬원 서울교육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며
- II. ‘앗/잇’ 계열 어휘의 어원
- III. 어원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
- IV. 나가며

## I. 들어가며

“끼치 깂�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라요.”

새해가 되면 흔히 듣는 동요 가사이다. 아이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견우와 직녀를 위해 다리를 놓아 준 깂�치를 떠올린다. 예로부터 깂�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 준다는 길조로 여겨온 바, 12월 31일을 새해의 소식을 전해 주는 의미로 ‘끼치설’이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끼치설’은 “어린아이의 말로, 설날의 전날, 곧 설달그믐을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별다른 설명이 추가되어 있지 않다. 어원을 밝혀 보면 ‘끼치설’의 ‘끼치’는 옛말 ‘아치’가 변한 말이다. ‘아치’는 ‘작은’의 뜻을 지닌 말로 ‘끼치설’은 ‘작은설’이란 뜻이다.

이 외에도 단어의 어원을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심지어 잘못된 어원 해석을 정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솔이 적다고 우는 새”라서 ‘소쩍새’가 되었다든지, 행주산성 싸움에서 부녀자들이 돌을 날리기 위해 긴 치마를 잘라 만들어 입은 데서 ‘행주치마’라는 말이 생겨났다든지 하는 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소쩍새’는 본래 ‘솟격식’로 “솟적소쩍 우는

새”이며, ‘행주치마’는 ‘힝즈’(행자)와 ‘쵸마’(치마)의 합성어이다. 단어의 어원을 밝히는 일은 언중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단어의 진실을 알리는 소중한 업적이 될 것이다.

우리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어원 연구 결과가 국어학자들이나 국어에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더군다나 언중은 예로부터 어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물의 근원을 캐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원적 욕구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인도-유럽어를 중심으로 어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이유도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탐구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어원 연구는 국어학이나 언어생활에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이다. 홍윤표(2008)에서는 어원 연구를 통해 가장 보편적인 언어 변화의 유형을 찾을 수 있으며, 어휘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밝히고, 나아가 어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원 연구는 언어 생활사나 우리 민족의 생활의식을 알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어사 연구의 꽃은 국어 어원사전”이라 강조하기도 하였다.

어원 연구의 중요성은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연구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국어 교육에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최창렬(1992), 조현용(1999)에서 어원을 통한 국어 교육 방법을 논의한 바 있으나 개괄적인 연구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글에서는 단어의 어원을 밝힌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하여 이들을 국어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어원 연구 결과가 국어학적으로 가치가 있으면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기에 적절한 단어를 선별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앎/앎’ 계열 어휘가 선택되었다. 그 이유는 ①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② 문헌 고증 연구 방법<sup>1</sup>에 의한 결과가 구체적이면서 다

---

1 국어는 계통이 분명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 비교 방법에 의한 연구 결과는 참고로만 하였다.

양한 양상을 보이며, ③ 학자들간에 이견이 적었기 때문이다. ‘았/았’ 계열 어휘 연구는 전몽수(1938)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기문(1983), 최창렬(1985), 이기문(2005)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뒤, 조항범(2006a, 2006b)에서 풍족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 II. ‘았/았’ 계열 어휘의 어원

‘았/았’<sup>2</sup>은 ‘작다(小), 적다(少), 어리다(幼), 이르다(早), 벼금가다(次)’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았/았’은 다른 단어와 결합된 형태로 쓰였으며, 문헌에서 흔히 쓰인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선행 연구에서는 ‘았/았’ 계열 어휘를 주로 형태별로 정리하였으나 이 글은 교육적 활용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미별로 구분하여 설명할 것이다.

### 1. ‘[작다](小)’의 의미

‘았’의 형태가 ‘[작다](小)’로 쓰인 예는 여러 문헌에서 발견된다. 조항범(2006b)에서는 한자 학습서의 ‘微’에 대한 새김을 예로 들었다.

(1) ㄱ. 微 아출미 《千字文 23》(광주본)

ㄴ. 微 아출미 《千字文 23》(대동급본)

2 이기문(1983: 9)에서는 ‘았’에 용언 ‘흐-’가 붙어서 ‘아흐-’가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았’은 ‘아흐-’의 줄어든 형태라고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곧’(如)에 ‘흐-’가 붙어서 ‘곧흐-’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흐-’으로 줄어든 것을 예로 들었다. 이 글에서는 ‘았/았’을 현대어의 ‘아름-, 새-’ 등과 같은 불완전어근으로 처리한다. 접두사로 취급하는 논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접미사 ‘-이’가 결합한 ‘아지’의 형성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2) ㄱ. 微 자글미 《新增類合 下: 51》

ㄴ. 微 자글미 《千字文 23》(내각문고본)

‘微’에 대한 새김이 (1)에는 ‘아출’, (2)에서는 ‘쟈글, 자글’로 대응되어 있다. ‘작다’는 ‘작다’의 옛말로 ‘otland’이 [작다]로 쓰인 증거가 된다.

‘아춘설/아춘설/아춘설’에서의 ‘oland’도 [작다]의 뜻을 가진다.

(3) ㄱ. 아춘설밤(除夜) 《譯語類解補 3》

ㄴ. 또 아춘설날 바미 뿔해 섭나모 싸코 퀴우면(又方歲除積柴於庭燒火) 《分

門瘟疫易解方 6》

ㄷ. 아춘설(暮歲) 《譯語類解 上: 4》

ㄹ. 아춘설날 밤의 대를 끌 가온듸 토오면 료호니라 《辟廬新方 15》

(3)에 나타난 한자어 ‘제야(除夜), 세제(歲除), 모세(暮歲)’는 ‘섣달그믐날 밤, 한 해가 저물 무렵’을 가리키는 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된 낱말이다. 조항법(2006b)에서는 ‘아춘’은 ‘작음’, ‘아춘, 아춘’은 ‘작은’으로 설명하면서 ‘아춘설/아춘설/아춘설’이 ‘섣달그믐날’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를 ‘oland’이 [작다]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아춘’은 ‘、>—’ 변화에 의한 것으로, ‘아춘설/아춘설/아춘설’은 모두 ‘작은설’이라는 뜻이다. 이를 예는 유창돈(1964)에서의 해석과 일치한다.

조항법(2006b: 225-228)에서는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아치골, 아치말, 아치산, 아치실’의 ‘아치’도 [작다]의 뜻이라 주장한다. 즉 ‘\*아츠골, \*아츠말, \*아츠산, \*아츠실’에서 ‘츠’ 아래의 ‘—’가 ‘ㅣ’로 변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4) ㄱ. 아치골: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ㄴ. 아치말: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명도리

ㄷ. 아치산: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앗’의 의미가 [작다]라는 사실은 일찍이 전몽수(1938)에서 논의된 바 있다. 평안북도에서 설달그믐날, 정월열사흘날, 정월초나흘날들을 ‘아츰명질’<sup>3</sup> 또는 ‘작은명질’이라고 하는데, ‘아츰명질’의 ‘아츰’은 원형이 ‘아춘’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무수기’ 중에 ‘아츠조금’의 ‘아츠’도 [작다]의 의미라 설명한다. ‘무수기’는 ‘썰물과 밀물의 차’를 말하는데, ‘한무날(10일, 25일), 두무날(11일, 26일), ……’ 등이 이에 속한다. ‘아츠조금’도 ‘무수기’ 가운데 하나로 ‘7일, 22일’을 가리킨다. 반면 ‘한조금’은 조수가 가장 낮은 때인 ‘8일, 23일’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한’은 ‘[가장]([크다])’의 의미를 가진다. 즉 ‘아츠조금’의 ‘아츠’는 ‘한’에 대응하는 말로 [작다]의 의미를 뜻한다는 것이다. 조항범(2006b)에서도 전몽수(1938)에서의 논의에 동의하고 있다.

## 2. ‘[적다](少)’의 의미

‘앗’은 ‘[적다](少)’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5)는 ‘微’를 ‘아출’이나 ‘저글’로 새김한 예이다. 한자 학습서 『유합(類合)』에서 ‘微’를 ‘적다’로 새김한 것은 ‘아출’이 [적다]의 의미일 것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5) ㄱ. 微 아출미 《百聯抄解 17》

ㄴ. 微 저글미 《類合 10》(송광사본)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적다’는 [작다]와 [적다]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새김만으로는 ‘앗’이 [적다]의 의미로 쓰였다고 확정지을 수 없다. 이러한 논

---

3 전몽수(1938)에서 ‘명질’은 ‘名節’에서가 아니라 ‘명실’에서 전한 것이라 설명한다.

의는 (6)에서와 같이 『내훈(內訓)』에서 발견되는 용례로 설명할 수 있다. 유창돈(1964)의 『이조어사전』에서는 (6)에서 원문의 ‘鮮’에 대응하는 ‘아츠니라’를 ‘맞다’의 활용형으로 보고 ‘적다’로 풀이하고 있다.

(6) 물 사르미 띠여 두리 아츠니라(群猜鮮有存者) 《內訓 一: 33》

조항범(2006b)에서는 실제 문맥에 나타나는 용례가 단 하나에 불과하면서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맞’이 [적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중세국어의 ‘작다’와 ‘적다’의 용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남덕(1985: 217-218)에서는 다음의 예를 들면서 ‘작다’와 ‘적다’는 수량이나 분량의 가름 없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7) ㄱ. 자근 沙彌를 브려 《觀音經諺解 12》

ㄴ. 자근 며느리 (小媳婦) 《譯語類解 上: 57》

ㄷ. 나히 저고듸 能히 그를 짓낫다 (小年能綴之) 《杜詩諺解 8: 30》

(8) ㄱ. 밥을 쟈쟈 먹어 셀리 습끼며 《小學諺解 24》

ㄴ. 슬픈 뿐이 격격 㧇 㧇다(悲風稍稍飛) 《杜詩諺解 16: 51》

ㄷ. 쳐그나 기튼 즐거부미 이시려니와 《月印千江之曲 2: 5》

(7)의 ‘자근, 자근, 저고듸’는 [작다], (8)의 ‘쟈쟈, 격격, 쳐그나’는 [적다]의 의미로 쓰인 예로 ‘작다’와 ‘적다’는 현대에 이르러 의미가 분화되었다고 밝힌다. 이러한 설명에 기댄다면 ‘맞’도 [작다]와 [적다]의 의미를 모두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어리다](幼)'의 의미

'[어리다](幼)'의 의미는 '아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아지'는 '았'에서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sup>4</sup>

(9) ㄱ. 不知其首尾只聞阿只方言小兒之稱 《中宗實錄 28: 28》

ㄴ. 아지者獸子之名 《雅言覺非一》

조항범(2006a)에서는 (9-ㄱ)의 '阿只'는 '\*아지'로 재구되며 '小兒'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9-ㄴ)의 '아지'는 '짐승의 어린 것'을 지시한다. 즉 '아지'는 사람이나 짐승의 '어린 것'을 지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 등 [적다]의 의미에서 확장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지'는 '짐승의 새끼'를 지시하는 합성 형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0)의 '묘아지, 송아지, 장아지, 되아지'<sup>5</sup>가 바로 그것이다.

(10) ㄱ. 묘아지 구駒 《訓蒙字會 上: 18》

ㄴ. 송아지 독犢 《訓蒙字會 上: 18》

4 조항범(2006a)에서는 "不知其首尾只聞阿只方言小兒之稱《中宗實錄 28: 28》"의 '阿只'는 '\*아지'로 재구되며 '小兒'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조재형(2009)에서는 고대국어의 차자에 사용된 '之, 支, 只, 智, 志' 등의 한자음은 [기]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아기>아지'로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가 [지]로 변한 이유를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 이 글에서는 '았'에 '이'가 결합하였다는 조항범(2006a)의 논의를 따르기로 한다. 최병훈(1982)에서도 '\*았>았+이>아지'로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5 조항범(2006a)에서는 '묘아지', '되아지'의 형태가 모음충돌을 피하기 위해 '묘아지', '\*도아지'의 제1음절에 'ㅣ'를 삽입한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구본관(1999)에서는 '묘아지' 등은 '물+이+아지'의 속격 구성에서 온 것이고 이를 통사 구성이 어휘화하여 '묘아지'와 같은 어휘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았'의 의미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의 어휘 형성은 논외로 한다.

ㄷ. 罢 강아지와 둑과를 아나(又方抱狗子若鷄) 《救急方諺解 上: 10》

ㄹ. 以豕爲豚 豚亦云 되아지 《雅言覺非一以辛》

그런데 ‘-아지’는 짐승 이름에만 결합하지 않고 (11)과 같이 ‘박아지() 바가지), 모가지’ 등 다른 부류와도 결합한다.

(11) ㄱ. 흔 박으로 떠 分호야 두 박아지를 맹그물 《家禮諺解 4: 20》

ㄴ. 모가지 項 《韓佛字典 243》(1880)

‘바가지’는 ‘박으로 만든 작은 것’을 뜻하므로 ‘-아지’는 작은 것을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모가지’는 ‘목’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아지’에 ‘비하(卑下)’나 ‘경멸(輕蔑)’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작은 것’의 의미 확장이라 볼 수 있다.

전몽수(1938)에서는 ‘바느질애치’, ‘걸애치’, ‘벼슬애치’ 등 공부(工夫), 박사(博士), 서리(胥吏)를 ‘아치’라 불러왔는데, 이 말은 [작다]의 뜻인 ‘앞’에 ‘이’를 붙여 명사화시킨 말로 ‘소직자(小職者)’를 뜻한다고 하였다.

#### 4. '[이르다](早)'의 의미

‘朝’의 뜻으로 쓰인 ‘아침’을 ‘앞’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보기도 한다. 조항범(2006b)에서는 ‘아침’을 형용사 어간 ‘앞’과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된 형태로 보았다.

(12) ㄱ. 旦曰阿慘 《鷄林類事》

ㄴ. 그 저기 穰米를 아침 뷔여든 쪘 나조히 낙고 《月印釋譜 1: 45》

ㄷ. 인성이 아침 이슬 ㅋ튼니(人生如朝露) 《五倫行實圖 2: 12》

ㄹ. 아침ㅅ 헛비치 곤다온 郊甸에 소았도다 《杜詩諺解(重刊本) 14: 3》

ㅁ. 엇그제는 부귀자요 오늘 아침 빈천지라 《萬言詞》

(12ㄱ)의 ‘阿慘’을 ‘\*아춥’으로 재구한다면 ‘아춥’의 역사는 적어도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그 이전 시기에도 ‘\*아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12)에서 ‘அ’를 [이르다]의 의미로 해석하면 시간적으로 이른 시 간대이기 때문에 [작다]나 [적다]의 의미 확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적’도 ‘朝’의 뜻으로 ‘아춥’과 같은 의미이다. 조항범(2006a)에서는 ‘아적’이 16세기 이후 문헌부터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13) ㄱ. 조식들 쇠듯던 이리 다 그립고 아져기 효양이 오던 이리 다 싱각고 《順天金氏墓出土簡札》

ㄴ. 아격을 기드리더라(待朝)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 4: 28》

‘아격’의 형태 분석은 쉽지 않지만, 그 의미를 고려해 볼 때 ‘அ’ 계열 어 휘에 포함시킬 수 있다.

## 5. ‘[벼금가다](次)’의 의미

‘அ/அ’이 ‘[벼금가다](次)’의 의미를 보이는 경우는 친족관계 어휘에 서 살펴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자비’와 ‘아즈미’이다. 먼저 이기문 (1983)에서 제시한 『訓蒙字會』의 한자 새김으로 두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ㄱ. 舅 아자비 구, 伯 묻아자비 빙, 叔 아수아자비 숙

ㄴ. 始 아즈미 금, 嫂 아즈미 수, 嬸 아즈미 심, 姑 아즈미 고, 媽 아즈미 이

(14)의 예를 살펴보면 ‘아자비’는 ‘아버지(父)’와 같은 항렬의 남자에게, ‘아즈미’는 ‘어미(母)’와 같은 항렬의 여자에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단어의 가장 오랜 기록은 (15)와 같다.

(15) ㄱ. 叔伯皆曰了査祕 《鷄林類事》

ㄴ. 叔伯母皆曰了子彌 《鷄林類事》

ㄷ. 姨姈亦皆曰了子彌 《鷄林類事》

(15)에서의 ‘了査祕’와 ‘了子彌’는 각각 ‘아자비’와 ‘아즈미’에 대응된다.

조항범(2006a)에서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용례를 들어 ‘아자비’와 ‘아즈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6) ㄱ. 아자비는 아침도 주으려시며(伯叔朝飢) 《正俗諺解 10》(이원주 교수본)

ㄴ. 建初元年에 모든 아자비를 封爵호려커늘(建初元年欲封爵諸舅)

《內訓 2(상): 48》

ㄷ. 아자비와 져믄 아즈미와를 부인이 간스호드(從叔幼姑夫人存視) 《內訓 3: 31》

ㄹ. 그 겨지비 마조 흥 더브러 널오드 아자비 쇼를 소아 주기리이다(其妻迎謂弘曰叔射殺牛) 《內訓 3: 49》

(17) ㄱ. 아즈미와 몬누의와 아스누의와 쟁왜 𩔗마 혼인한 애 도라엣거든 형제 혼

듯 괴 앉디 말며(姑姊妹女子子已嫁而反兄弟弗與同席而坐) 《內訓 1: 5》

ㄴ. 아즈미를 져호사(載畏嬪氏) 《龍飛御天歌 10: 15》

이기문(1983)에서는 ‘아자비’는 ‘았+아비’, ‘아즈미’는 ‘았+어미’로 분석하였다. 이때 ‘아즈미’의 경우 “\*아저미>아자미>아즈미”的 변천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조항범(2006a)에서는 “\*아자미(았+\*아미)”에서 직접 ‘아즈미’로 변한 것으로 설명한다. 최창렬(1986: 135)에서는 ‘았(小)+암(父)+이’(주격→명사화)와 ‘았(小)+엄(母)+이’로 분석한다. 어형 분석이나 변천 과정에 대한 해석이 각 학자들마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나 ‘아자비’와 ‘아즈미’를 ‘았’의 결합형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창렬(1986)에서 ‘았’을 [작다] 또는 [버금가다]의 의미로, 조항범(2006a)에서는 ‘부차적’ 또는 ‘간접적’이라는 비유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들의 해석은 의미 확장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작다]와 [적다]는 유의 관계가 있음을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아자비’와 ‘아즈미’를 “아비 또는 어미에 비해 관계가 적은 사람”, “아비 또는 어미에 버금가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부차적’, ‘간접적’ 등의 해석과 일치한다. 이 글에서는 이를 [버금가다]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근

(18) ㄱ. 三寸少爲父(舅) 《大明律直解 6》

ㄴ. 三寸少爲母(姑) 《大明律直解 6》

(18)에서 ‘少爲父’가 ‘舅’에, ‘少爲母’가 ‘姑’에 대응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버금가다]의 의미는 ‘아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조항범(2006b)에서 ‘아촌’을 ‘았’의 관형사형으로 설명한다.

(19) ㄱ. 우리 아촌아들 李潮의 글 수미 親近호도다(吾甥李潮下筆親) 《杜詩諺解 16: 15》

ㄴ. 아촌아들 警戒호 詩에 널오득](戒從子詩曰) 《內訓 1: 12》

ㄷ. 오라비과 아촌아들과《癸丑日記 144》

ㄹ. 아촌아들 경계호 詩예 골오득](戒從子詩曰) 《御製內訓 1: 10》

(20) ㄱ. 아즈미며 묻누의며 아으누의며 아촌뻘이 아비 업슨 이와 남진 업슨이  
잇거든(姑姊妹姪有孤嫠者) 《小學諺解 6: 96》

ㄴ. 아촌뻀 姪女 《譯語類解 上: 57》

‘아촌아들’과 ‘아촌뻀’은 각각 ‘조카아들’과 ‘조카딸’을 가리킨다. 조항범

(2006a)에서는 ‘조카’와 ‘질녀’라는 친족원은 형제의 자녀라는 점에서 치칭자에게는 부차적이고, 간접적인 존재라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아자비’와 ‘아즈미’에 대한 해석과 상통한다.

한편 (21)에 나타난 ‘아촌아비/아촌아빠’, ‘아촌어미’를 ‘\*아촌아비’, ‘\*아촌어미’로 재구한다.

(21) ㄱ. 故於叔父本呼 아촌아비 卽亞父之謂 而今又通呼於伯父矣於叔母本呼 아촌어미 卽亞母之謂 而今痛呼於伯母姑母姨母及兄嫂矣 今又轉 아즈바 亦曰 아즈비 聲急而短也 아즈마 亦曰 아즈미 聲急而短也 《華音方言字義解》

ㄴ. 叔父 本呼 아촌아빠 《華音方言字義解》

‘\*아촌아비’는 ‘伯叔父’를 지시하다가 ‘母’ 쪽으로 보아 삼촌 관계의 인물인 ‘舅’를 지시할 수 있게 되었고, ‘\*아촌어미’ 역시 ‘姑母’를 가리키다가 ‘伯母, 姨母, 外叔母’ 등과 같은 여성 친족원을 지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 III. 어원 연구 결과의 교육적 활용

#### 1. 다의어의 의미 확장

‘앎/앎’은 어원적으로 의미 확장을 잘 설명해 주며, 나아가 다의어의 의미 확장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어원 연구로 밝혀진 의미 확장은 다의어 교육에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앎/앎’의 의미 확장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22) [작다](小) → [적다](少) → [어리다](幼) → [이르다](早) → [벼금가다](次)

(22)에서의 의미 확장 양상은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 이행되는 ‘범주적 은유(categorial metaphors)’의 양상을 보인다. Heine et al.(1991: 48-49)에 따르면 의미 확장은 (23)의 구조에서와 같이 ‘사물에서 행위, 행위에서 공간, 공간에서 시간’ 등 보다 구체적인 왼쪽에서 더 추상적인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일부인 ‘등(back)’이 공간적 개념인 ‘뒤(behind)’로,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시간적 개념인 ‘후(after)’로 의미가 확장되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23) 사람(person) > 사물(object) > 행위(activity) > 공간(space) > 시간(time)  
> 질(quality)

‘얇/및’의 ‘[작다] → [적다] → [어리다] → [이르다] → [벼금가다]’로의 의미 확장은 ‘(물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크기가) 크지 않다 → (수량이) 많지 않다 → (나이가) 많지 않다 → (흐른 시간이) 많지 않다 → (관계성이) 많지 않다’로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람>사물>시간>추상’의 방향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으며, 인접성인 환유의 기제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sup>6</sup>

Wittgenstein(1958)에서는 ‘가족의 닮음’처럼 연쇄적으로 의미가 확장된다고 설명한다. 다의어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원형(A)을 중심으로 인접항

---

6 임지룡(2009: 200-201)에서는 의미 연쇄 구조에 따른 다의적 확장의 기제를 인접성에 의한 연쇄와 유사성에 의한 연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인접성은 환유, 유사성은 은유에 의한 의미 확장이다. 예를 들어, ‘벤치’가 ‘(공원에 설치해 놓은) 긴 의자→(선수가 대기하도록 설치해 놓은) 축구장의 긴 의자→(축구장에서 긴 의자를 설치한 곳에 있는) 감독’으로 의미 연쇄가 일어나는 것은 환유에 의한 의미 확장이며, ‘다리’가 ‘신체어(다리를 절다)→사물(책상의 다리가 부서졌다)→공간(다리를 건설했다)→과정/단계(한 다리를 거치다)→중계자(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니 자네가 다리가 되어 주게)’로 의미 연쇄가 일어나는 것은 은유에 의한 의미 확장이다.

간의 의미연쇄에 의해서 의미가 확장된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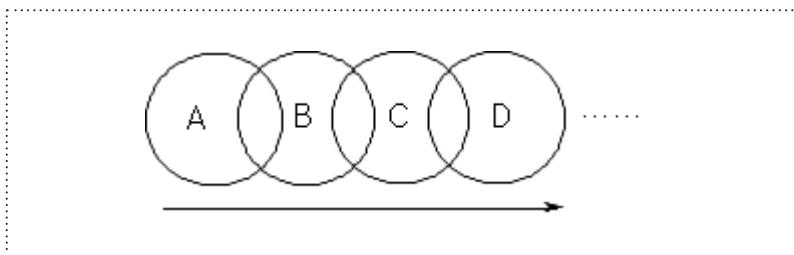


그림 1. 의미 연쇄(임지룡, 2001: 170 재인용)

단어의 의미 확장은 수평적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한 단어의 의미 확장은 수직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권도경(2005: 51)에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국어의 ‘가다’가 수평적으로는 [사람] → [짐승] → [새]로 그 의미가 다양하게 확장되며, 수직적으로는 [사람] → [사물] → [시간] → [정서]로 의미가 확장된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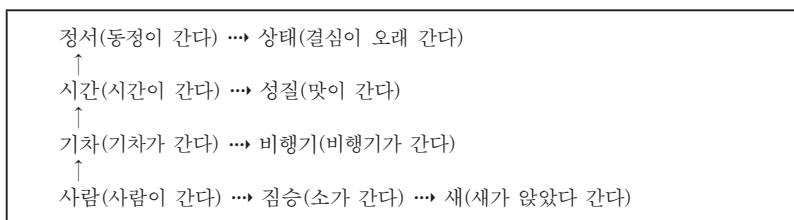


그림 2. ‘가다’의 의미 확장

단어의 다의성은 국어학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각 단어의 다의성을 해석하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밝혀내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단어의 사전 처리나 전산 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의관계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최근에는 의미 확장으로 국어의 다의관계를 설명하려는 연구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국어 단어의 의미 확장에 대한 논의는 화자의 직관에 의해 기술되어 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단어의 의미 확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단어의 어원 연구에 기대는 방법이다. 이러한 설명 방법은 국어 교육에서 단어의 다의성을 학습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 2. 어원핵을 활용한 어휘 교육

국어의 어원 연구가 보다 활발해진다면 어원핵(etymon)을 활용하여 이들과 관련된 어휘들을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앎/앎’과 관련된 어휘들을 함께 교육하면 의미 연결망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어에는 ‘앎/앎’의 형태와 의미가 남아 있는데, 이러한 단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4) ㄱ. 아치랑: 아치랑아치랑, 아치랑거리다, 아치랑대다, 아치랑아치랑하다  
ㄴ. 아치장: 아치장아치장, 아치장거리다, 아치장대다, 아치장아치장하다

(24)의 ‘아치랑, 아치장’은 “키가 조금 작은 사람이 힘없이 몸을 조금 흔들며 자꾸 걷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어근으로 홀로 쓰이는 경우는 없고, ‘아치랑거리다, 아치랑대다, ……’ 등으로 쓰인다. ‘아치랑거리다’ 류가 작은 사람의 행동을 가리키는 이유는 어원적으로 ‘아치’가 [작다]의 의미를 가지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 단어의 연관성은 ‘어치렁, 어치정’류에서 발견된다.

- (24') ㄱ. 어치렁: 어치렁어치렁, 어치렁거리다, 어치렁대다, 어치렁어치렁하다  
ㄴ. 어치정: 어치정어치정, 어치정거리다, 어치정대다, 어치정어치정하다

‘어치렁, 어치정’은 “키가 조금 큰 사람이 힘없이 몸을 조금 흔들며 자꾸 걷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는 국어의 상징어에서 흔히 발생되는 현상으로 모음 교체로 인해 ‘아치랑, 아치장’보다 큰말을 나타내게 된 것으로 추정되나 어원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25) ㄱ. 강아지, 망아지, 송아지

ㄴ. 벚아치, 동냥아치, 동자아치, 벼슬아치, 시정아치, 재주아치

(25 ㄱ)은 ‘아지’의 형태가 남아 짐승의 새끼를 뜻하지만, 모두 단일어로 처리하고 있다. (25 ㄴ)의 ‘-아치’는 현대국어에서 접미사로 처리하고 있다. ‘벚아치’는 “관아의 어떤 부서에서 사무를 맡아보던 사람”, ‘동냥아치’는 “동냥하러 다니는 사람”, ‘동자아치’는 “밥 짓는 일을 하는 여자 하인”, ‘벼슬아치’는 “관청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보는 사람”, 시정아치는 “저잣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 재주아치는 “재주꾼(재주가 많거나 뛰어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아치’가 결합한 단어는 주로 사회적으로 직분이 낮거나 사람이나 직업을 얕잡아보는 데 쓰이는데, 이는 어원적으로 [작다]의 의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어원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형태를 중심으로 단어를 모으고 동일 의미장 내에서 교육을 하면 의미적인 연관성이 명확해져 어휘 교육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방법은 영어를 비롯한 인도 - 유럽어 어휘 교육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어원론은 서양언어학의 여러 분과 중에서도 기나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낱말들의 원천과 역사를 파악하는 비교역사언어학 연구가 활발한 인도 - 유럽어 연구에서는 어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들의 어원 연구는 주로 음운변화의 법칙이나 형태 형성에 작용하는 규칙을 발견함으로써 어근을 재구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언어들을 비교하는 연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근의 어원론은 풍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된 어원

형태를 통해 언중이 낱말의 의미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다. 진정근(2003)에서는 이를 ‘의미 암시’<sup>7</sup>, ‘명명 원리’ 등의 용어로 설명하면서 어원론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슈타인탈(H. Steinthal, 1881)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원론은 인간의 직관을 알게끔 가르쳐 주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인간은 이러한 직관을 통해 대상들(사물의 개념들과 관계들)을 의식화하고 창조한다는 것이다. 어원론은 낱말의 역사를 고찰하는 데 파생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파생은 연대적으로 어원핵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Lakoff(1987)에서는 단어가 방사 범주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Evans V. and Green M. 2006: 331 재인용). <그림 3>에서 검정색 원은 단어의 원형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원형 의미에 가까울수록 중심적 원형에 가깝게 위치한다고 한다. 의미 연결망에 따르면 의미가 비슷한 낱말끼리 서로 가까이 있고, 하나의 단어에 의해 주변의 단어가 활성화된다. 어원핵은 의미 연결망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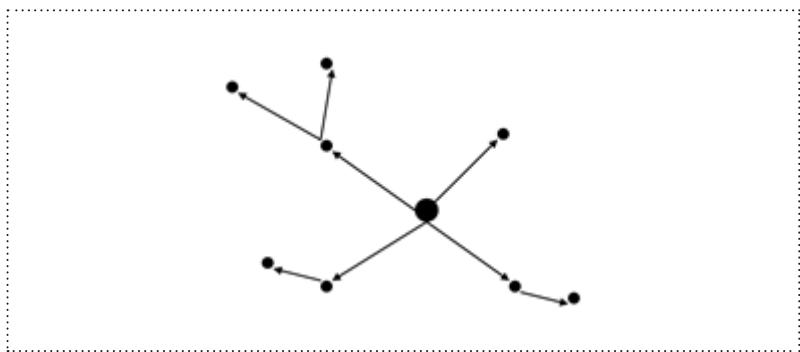


그림 3. 의미 연결망(Evans V. and Green M.(2006) 재인용)

7 암시의미(connotation)는 어떤 표현이 가지는 비명시적, 정감적, 상징적 의미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장미’는 영국을 암시하고, ‘비둘기’는 평화를, ‘개미’는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 표시의미(denotation)은 암시의미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진정근(2003)에서의 ‘의미 암시’는 ‘connotation’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어근의 형태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예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영어에서는 어원핵을 활용한 어휘 교육이 활성화되었다. 예를 들어, ‘astro -’, ‘centr -’의 의미를 학습한 뒤 복합 형태인 ‘astronomer, astronomy, astronaut, astrology’, ‘centralism, centrifugal, centripetal’ 등을 학습하는 형태이다. 어원으로 어휘를 학습하면 학습자는 형태와 의미가 유사한 단어를 한꺼번에 기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휘 학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결망이 활성화되어 단어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국어 교육에서는 ‘앎/앎’ 계열 어휘뿐만 아니라, 이관식(1988)에서 연구된 ‘-줌(把)’에 의해 형성된 단어, ‘조항법(2003)에서 연구된 ‘갓[妻]’ 계열 어휘, 김지형(2008)에서 연구된 ‘불’ 관련 어휘 등의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의미 관계 연계 교육

낱말 관계는 평면적인 관계가 아니다. 매우 복잡한 입체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앎/앎’의 의미가 [작다] → [적다] → [어리다] → [이르다] → [벼금 가다]로 의미가 확장되었다면 각각의 의미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의미가 확장되거나 다른 단어들과 관계를 맺는다.

II-5절에서 설명한 ‘아자비’와 ‘아즈미’는 친족 관계 어휘와 관련을 맺고 있어 교육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12세기의 『鷄林類事』에 ‘了秘’, 15세기 초의 『朝鮮館譯語』에 ‘阿必’로 차자 표기되어 나온다. 이들은 모두 ‘\*아비’로 재구된다. 이는 15세기의 정음 문헌에 나오는 ‘아비’와 일치한다. ‘아비’는 중세국어는 물론이고 근대국어에서 도 ‘父’를 지시하는 평칭의 지칭어로 쓰였다. 곧 호칭어인 ‘아빠’와 평칭으로서 짹을 이룬다. 통일 신라 시기의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雙磎寺真鑑禪師大空塔碑)』에 ‘阿彌’, 고려 시기의 『鷄林類事』에 ‘了彌’로 차자 표기되어 나온다. 이들은 모두 ‘\*아미’로 재구된다. 15세기 정음 문헌에는 ‘어미’로 나타나는데, 15세기 이전에 제1음절에서 ‘ㅏ>ㅓ>ㅓ’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왜 이러한 모음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작다]의 ‘았/았’과 달리 [크다]의 의미가 결합된 형태가 있다. 바로 ‘할아비’와 ‘할미’이다. 『鶴林類事』에 ‘漢了秘’, ‘漢了彌’로 차자 표기되어 나온다. 이는 각각 ‘\*한아비’와 ‘\*한아미’로 재구된다. ‘\*한아비’는 15세기 정음 문헌에 나오는 ‘한아비’와 일치한다. ‘한아비’는 ‘아비’에 ‘한’이, ‘\*한아미’는 ‘母’의 ‘\*아미’에 ‘한’이 결합된 형태이다. ‘하-’는 ‘大, 多’의 의미를 지닌다.

즉 한 세대 위의 인물은 ‘한(大, 多)’을, ‘하-’와 반대의 개념인 ‘았’은 혈연적으로 다음 단계인 ‘아자비’와 ‘아조미’에 결합된 점을 비교하며 친족 관계 어휘들을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식(新)’가 결합된 단어와 연계하여 교육할 수도 있다. ‘식’이 결합된 형태는 ‘식아비’, ‘식어미’로, 현대어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다. 최창렬(1985: 167)에서는 ‘식’를 새롭다는 뜻을 가진 옛말 ‘식’의 변화형으로 보아 ‘식(新)>식(嫂)>시’로 변형된 것으로 설명한다.

‘아비/아미’에 ‘았/았’, ‘한’, ‘식-’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의 의미망을 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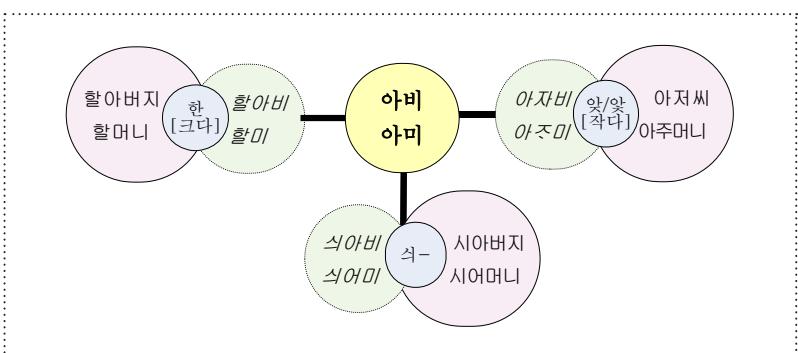


그림 4. ‘아비/아미’의 의미망

<그림 4>에서 ‘았/았’, ‘한’, ‘식-’은 ‘아비/아미’에 결합할 수 있는 형태를 나타낸다. ‘아자비/아조미’, ‘할아버지/할미’, ‘식아버지/식어미’는 ‘았/았’, ‘한’,

‘식-’가 ‘아버지/어미’에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며, ‘아저씨/아주머니, 할아버지/할머니, 시아버지/시어머니’는 각 단어에 대응하는 현대어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어원 연구는 의미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의미 관계를 고려한 어휘 학습법은 각 단어의 연결망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 4. 방언 교육과의 연계

어원 연구는 방언 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 ‘았/았’의 어원을 밝히다 보면 지역적으로 다르게 변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6) ㄱ. 소아치/송아치

- ㄴ. 매소아치, 장사아치, 흥정아치
- ㄷ. 아치조금

‘소아치/송아치’는 송아지의 방언으로 강원도, 경상도, 전라남도, 충청도에서 쓰인다. 이는 ‘-아지’가 결합한 ‘송아지’와 달리 ‘-아치’가 결합하여 지금까지 전해온 말로, ‘-아지’와 ‘-아치’가 동일한 어원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즉 방언은 품위가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각 지방마다 다른 변화를 겪었음을 알려주는 교육이 된다. 즉 어원 교육은 학생들에게 언어 변천 과정의 올바른 인식을 일깨워 줄 수 있다.

‘매소아치’는 매사냥꾼의 방언으로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쓰인다. ‘장사아치’는 장사치의 북한어, ‘흥정아치’는 흥정꾼의 경남 방언이다. 이를 단어는 ‘빗아치, 동냥아치, 동자아치, 벼슬아치, 시정아치, 재주아치’의 ‘-아치’가 ‘小’를 뜻하는 형태임을 보충하는 자료가 된다.

‘아치조금’은 ‘아츠조금(조수 간만의 차로 볼 때 이렛날과 스무이틀을 이르는 말)’의 북한어이다. 현대국어에서는 ‘아치’의 형태가 사라졌으나 방언에

는 그대로 형태가 남아 있어 ‘아츠조금’이 ‘앗/앗’에서 기인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방언은 어원을 재구하는 데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언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아울러 III-2절에서 소개한 비교언어학을 소개함으로써 각 지방의 언어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다.

## 5. 민간어원을 활용한 어원 교육

민간어원(folk etymology)은 언중이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어형을 그와 유사한 다른 어형에 결부시켜 나름대로 해석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로부터 언중은 말의 근원을 찾는 데 관심을 가져 왔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기존의 단어가 새로운 형태로 바뀌거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민간어원은 언어 변화의 중요한 기제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민간어원은 지나친 상상력으로 인하여 잘못된 어원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흥미 삼아 붙여 본 비과학적인 어원설을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정설로 간주하기도 한다. 고착된 민간어원은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어원 연구에서 경계해야 할 연구 방법이다.

‘까치설’은 민간어원에 의해 잘못된 해석이 언중들에게 고착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까치설’의 중세 국어 어형은 ‘아춘설’로 본래 ‘작은설’이란 뜻이었다. 그런데 ‘아춘’이란 말이 없어지고 난 뒤 언중들은 그 유연성을 ‘까치’에서 찾으려 한 것이다. ‘까치’는 평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이며, 또한 칠월칠석에 은하수 다리를 놓아 주는 상서로운 새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까지도 ‘까치설’이 되어 버렸다. ‘까치설’ 민간어원은 다른 어휘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조항범 (2006b: 227)에서는 ‘까치고개, 까치밭, 까치산’ 등 우리나라 지명에 붙여진 이름은 ‘까치’와 무관한 곳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지명에는 ‘까치[鶲]’가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유래설이 결부되어 있지만, 정작 ‘까치’와

는 무관하며, 해당 지형지물이 작은 규모여서 붙여진 이름이 많다고 한다. 가령 ‘까치고개’는 고개의 규모가 작아서, ‘까치산’은 작고 낮은 산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설명한다.

‘아저씨’와 ‘아주머니’에도 민간어원에 의해 해석이 존재한다. 최창렬(1985: 300-301)에서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국어 교사의 잘못된 어원 인식을 개탄하면서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어원을 바로잡기도 하였다. 민간어원에 의하면 ‘아저씨’는 ‘아기+씨’의 변형으로 ‘아기를 넣을 수 있는 씨를 보유한 자’라는 뜻으로, ‘아주머니’는 ‘아기+주머니’로서 ‘아기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민간어원에 의해 잘못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어원 교육을 통해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까치설’의 ‘까치’는 ‘아치’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까치설’이 나오려면 “\*아치설”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문헌에 “\*아치설”은 나타나지 않는다. 조향범(2009: 361)에서는 “\*아치설”的 ‘아치’를 다음의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아촌설’에서 ‘ㄴ’이 탈락하여 “\*아츠설”로 변한 뒤에 “\*아치설”이 되었다는 설명인데, 이때에는 ‘ㄴ’ 탈락의 정당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둘째는 형용사 어간 ‘ott’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아츠-”의 모음 변화형으로 보는 것이며, 셋째는 형용사 어간 “\*아츠-”에서 변한 “\*아치-”의 모음 변화형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는 각각 “\*왓설”과 “\*아츠설”이라는 기원형이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는 ‘ott’에서 파생된 명사 “\*아치”로 보는 것이다.

“\*아치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아직까지 판단을 보류한 상태이지만, 이것이 ‘까치설’로 변한 이유는 소리가 비슷한 ‘까치’의 영향을 받았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민간어원은 이와 같이 주로 음운적 유사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최창렬(1986: 287)에서는 Ulmann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민간어원설은 언중들의 심리적인 연상 작용에 의하여 음운 유사로부터 의미 연합을 이끌어 내는 데 의지하는 경우가 그 대부분이라고 보았다.

‘아저씨’와 ‘아주머니’ 역시 II-5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자비’와 ‘아

즈미’에서 온 말이다. 두 단어의 어형 변화는 학자들마다 다른 설명을 취하지 만<sup>8</sup> ‘아자비’와 ‘아즈미’에서 기원했다는 의견은 일치한다.

어원 교육이 민간어원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헌 연구나 비교 역사언어학의 방법론에 기대어야 한다. 그러나 민간어원에 의한 해석은 언중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수정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민간어원에 의한 해석을 교육에 활용하여 어원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한(大)’과 결합된 형태를 교육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황소, 황새’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황소, 황새’는 민간어원에 의한 해석이 언중 사이에 널리 알려진 단어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많은 학생들이 ‘황소, 황새’의 ‘황’을 ‘黃’으로 오인한다. 그러나 ‘황소, 황새’는 각각 ‘한소, 한새’에서 온 말로 ‘큰 소, 큰 새’를 뜻하는 단어이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황소, 황새’를 도입부에 활용하여 ‘한’의 의미를 학습한 뒤, ‘한길, 한비, 할아버지, 할머니’ 등 ‘한’과 결합한 단어와 연계하면 좀 더 수월하게 어원 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 6. 올바른 외래어 사용 교육

‘았/았’ 계열 어휘에서 ‘아춘아들, 아춘뜰, \*아춘아비, \*아춘어미’<sup>9</sup> 등은 현재 사라진 단어들이다. ‘아춘설, 아춘’과 같이 형태가 변하거나 ‘아자비, 아즈미’와 같이 의미가 변하기도 하지만, 위 단어들과 같이 아예 소실해 버리는 단어들도 있다. 단어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이 사라져 소실하는 경우도 있지

8 최창렬(1986)에서는 ‘아저씨’를 ‘았(小)+암(父)+씨(존칭)’로 분석하고 ‘아자씨>아저씨’로 변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아주머니’ ‘았(小)+엄(母)+엇(親)+니(女)’로 분석한다. 조향범(2009)에서 ‘아저씨’는 ‘아자’에 ‘-씨’가 결합한 것으로 설명하다. ‘어마, 아비’에 ‘-씨’가 결합된 ‘어마씨, 아바씨’에 유추된 형태로 본다. ‘아주머니’는 ‘아즈마니>아즈마니>아주마니>아주머니’로 변한 것으로 보고, 모음 ‘->-’로 설명한다.

9 조향범(2006b)에서는 18세기 문헌인 『華音方言字義解』에서 보이는 ‘아춘아비, 아춘어미’로 ‘\*아춘아비, \*아춘어미’의 재구형을 추정하였다.

만, 이들은 다른 단어와의 경쟁에서 밀려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항범(2006b: 220)에서는 ‘아춘아들’은 ‘족하’와의 유의 경쟁에서, ‘아춘쌀’은 ‘딜녀(姪女)’와의 유의 경쟁에서 불리하여 해당 의미를 잃고 소실된 것으로 설명한다. ‘족하’와 ‘딜녀’는 (27)에서와 같이 문헌상 17세기에 처음 보인다.<sup>10</sup>

(27) ㄱ. 족하를 어엿씨 너기며(撫諸姪) 《東國新續三綱行實圖》

ㄴ. 三寸 족하와 및 딜녀는 다 내 同氣의 난 배니(三寸姪及女皆我同氣之所出)  
《警民編諺解》

한편, ‘伯叔父’와 ‘姑母’에 대한 지칭어 ‘\*아춘아비’와 ‘\*아춘어미’는 각각 ‘아자비’와 ‘아즈미’에 밀려 결국 소실된 것으로 본다. 15세기 이후 ‘\*아춘아비’, ‘\*아춘어미’는 거의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데 반해 ‘아자비, 아즈미’의 사용은 15세기 아래 아주 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자비’와 ‘아즈미’ 역시 ‘伯叔父’나 ‘姑母, 伯母, 姨母, 外叔母’ 등의 한자어의 경쟁에서 밀려 친족 관계와 무관한 성인을 가리키는 의미로 변천하였다.

‘아춘쌀’도 한자어 ‘딜녀(姪女)’와의 경쟁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조항범(2006b: 221)에서는 음절수가 많은 것에 따른 비경제성, 문화적으로 우월한 한자어에 의해 소실된 것으로 설명한다. 다소 이견이 있지만, ‘아춘아들’도 한자어의 경쟁에서 밀려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백문식(2006: 428)에서와 같이 ‘조카’를 한자어 ‘족하(足下)’나 ‘족하(族下)’가 발음에 따라 이어 적기를 하면서 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면, ‘아춘아들’은 한자어 ‘족하’로 인해 소실된 것이다.

‘아춘아들, 아춘쌀’의 예와 같이 한자어나 외래어의 경쟁에서 밀려 고유

10 조항범(2006b: 220)에서는 ‘족하’와 ‘딜녀(姪女)’가 문헌상 17세기에 처음 발견되지만 그 이전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족하’의 어원을 한자 ‘族下’라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어가 소설하는 것은 물론, 고유어가 한자어로 둔갑한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대 국어에서도 고유어(또는 한자어)와 외래어가 공존하며 경쟁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단어의 어원을 살펴봄으로써 사라진 고유어를 탐색하는 교육 활동은 무분별한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IV. 나가며

지금까지 ‘앗/앗’ 계열 어휘 어원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어원 연구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원을 살펴본 결과, ‘앗/앗’은 ‘작다(小), 적다(少), 어리다(幼), 이르다(早), 벼금가다(次)’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문헌에서 흔로 쓰인 예는 발견되지 않고 다른 단어와 결합된 형태로 쓰였다.

어원 연구 결과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결과, 다의어의 의미 확장은 물론, 어원핵이나 단어간의 의미 관계를 이용하여 의미 연결망을 활성화 함으로써 어휘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방언 교육과 외래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태도 교육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민간어원에 의해 잘못된 해석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았다.

어원과 관련된 국어 교육은 매우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어원에 대한 국어 교사의 잘못된 지식이 교육 현장을 통해 널리 전파되기도 한다. 부족한 자료는 국어 어원 연구의 난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원 교육은 어휘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학생의 어휘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어원 교육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어휘 교육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범보(2011), 「의미론에서 ‘의미’와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과 번역어」, 『언어와 정보』 15(1), 한국언어정보학회, pp. 79-92.
- 구본관(1999), 「축소 접미사에 대한 연구」, 『국어학』 34, 국어학회, pp. 109-141.
- 권도경(2005), 「국어 어휘의 다의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형(2008), 「‘불’ 관련 어휘의 어원 탐색—어원 연구 방법의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9, 한국어학회, pp. 41-78.
- 백문식(2006),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증보판)』, 삼광출판사.
-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관규(2011), 「문법 교육과 어휘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pp. 127-158.
- 이관식(1998), 「-줌[把]’의 語源」, 『어원연구』 1, 한국어원학회, pp. 115-126.
- 이기문(1983), 「‘아자비’와 ‘아즈미’」, 『국어학』 12, 국어학회, pp. 3-12.
- \_\_\_\_\_(2005), 「계림유사의 姑曰漢了彌」, 『국어학』 45, 국어학회, pp. 3-12.
- 이남덕(1985), 『한국어 어원 연구(III)—형용사 어휘의 어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임지룡(2001), 「다의어 ‘사다’, ‘팔다’의 인지의미론적 분석」,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pp. 165-190.
- \_\_\_\_\_(2009), 「다의어의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의미학』 28, 한국어의미학회, pp. 193-226.
- 전봉수(1938), 「어원고(1)」, 『한글』 6(4), 한글학회, pp. 239-245.
- 전재호(1992), 『국어어휘사연구(증보수정판)』, 경북대학교출판부.
- 조재형(2009), 「‘아기’의 어원에 대한 재고찰」, 『국제어문』 47, 국제어문학회, pp. 99-127.
- 조항범(2003), 「갓[妻] 계열 어휘의 어원과 의미」, 『국어학』 42, 국어학회, pp. 207-247.
- \_\_\_\_\_(2006a), 「‘잇’ 계열 어휘의 형성과 의미」, 『한국어의미학』 19, 한국어 의미학회, pp. 137-158.
- \_\_\_\_\_(2006b), 「‘앗[小]’ 계열 어휘의 어원과 의미」, 『국어학』 47, 국어학회, pp. 207-233.
- \_\_\_\_\_(2009), 『국어 어원론』, 도서출판 개신.
- 조현용(1999), 「한국어 어휘교육과 어원교육」, 『어원연구』 2, 한국어원학회, pp. 191-210.
- 진정근(2003), 「어원론의 연구과제로서의 명명원리」, 『텍스트언어학』 14, pp. 375-396.
- 최범훈(1982), 「‘아기’의 차용표기에 대하여—그 기원어의 탐색」, 『어문연구』 11,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pp. 169-183.
- 최창렬(1985), 「우리말 친족어의 어원적 의미」, 『국어교육』 51, 한국어교육학회, pp. 383-400.
- \_\_\_\_\_(1986), 『우리말 어원연구』, 일지사.
- \_\_\_\_\_(1992), 「어원과 국어 교육」, 『어학』 19,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pp. 39-47.
- 홍윤표(2008), 「국어 어원 연구에 대한 관건」, 『한국어학』 39, 한국어학회, pp. 131-158.
- Evans, V. and Green, M. (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임지룡 · 김동환 옮김, 2008,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Heine, B., Claudi, U. and Hünnemeyer, F.(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 어원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앎/앎’ 계열 어휘의 어원 연구를 중심으로—

안찬원

이 글은 단어의 어원을 밝힌 선행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국어 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친근하면서 학자들간에 이견이 비교적 적은 ‘앎/앎’ 계열 어휘 어원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교육적 목적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어원 연구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어 어원을 밝힌 연구 결과물은 다의어의 의미 확장은 물론, 어원핵이나 단어간의 의미 관계를 이용하여 의미 연결망을 활성화함으로써 어휘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방언 교육과 외래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태도 교육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어원에 의해 잘못된 해석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았다.

어원 교육은 어휘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학생의 어휘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어원 교육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어휘 교육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국어교육, 어원, 어휘 교육, 다의어, 어원핵, 의미 관계, 방언 교육, 민간 언어

## ABSTRACT

# A Study on the Educational Applications of Etymology

Focused on Etymology of ‘ac(액)/ach(액)’-Series Word

An, Chan-won

This thesis suggests some ideas on the educational applications of etymology by us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Etymological findings is applicable to vocabulary education. They help in Polysemy learning by tracing lexical extended meaning. Vocabulary education using etymon is to give help to activate semantic network. In addition, it can be utilized in education of dialect and foreign language.

Etymology education is try to generate excitement about the words. As a result, educational application of etymology It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a positive attitude, as well as expand vocabulary abilities.

**KEYWORDS** Korean Education, Etymology, Vocabulary Education, Etymon, Semantic Network